

투데이 칼럼

“잊지 말아야 할 그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전국 각지에서 꽃 축제가 열리고 주말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하려 저마다 여행을 떠난다. 화사한 꽃향기에 취하는 것도 좋지만, 4월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다가오는 4월 13일은 제88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4월 13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1989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으나 다른 정부 기념일과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88주년이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1919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고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시행했던 3.1절, 이날의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한데 모아 세계민방에 대한



이 우 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치기 위해 4월 13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내무총장 안창호 선생님의 주도로 국내의 비밀행정조직망과 교통국을 조직하고 각종 외교 선전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세계 곳곳에 알렸으며, 독립신문 발행, 사료 편찬소 설치 등 교육·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과 비밀결사 한인애국단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 속에 항

저우, 전장, 광저우 등 여러 번 청사를 옮겨야 하는 고난의 길속에서도 끝까지 항일운동을 포기 하지 않았고 1943년 카이로 선언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결국 1945년 연합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함께 싸운 결과로 광복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다.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은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에 나와 있듯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기반이 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선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걸었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독립에 대한 강한 믿음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희생정신으로 1919년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까지 험난한 애국의 길을 앞장서서 걸었던 순국선열들의 모습이 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다.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대통령 탄핵 등 현재의 한반도 국내의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하루이지만 오는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현신한 애국선열들의 뜨거웠던 마음과 송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독자제언

안전 위협 스몸비 올바른 보행습관 필요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줌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들은 길을 걸을 때도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고 직진한다.

주변을 살피지 않는 스몸비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스몸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행 사고'는 최근 4년만에 2배나 급증했다.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보행자가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는 평소보다 절반이상 줄어들고 시야폭과 전방주시율이 떨어지게 된다.

사고위험은 비단 도로 위뿐만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등산을 하는 스몸비 때문에 산악 안전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좁고 미끄러운 산길을 이어폰을 꽂은 채로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걷다 본인은 물론 다른 등산객

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한다. 스마트폰에 빠져 느리게 걸다가 다른 등산객들과 시비가 붙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사진을 찍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등 추락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는 산행은 소주 1병을 마시고 산행하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하다.

날로 늘어나는 스몸비족은 '어깨빵'과 같은 새로운 현상을 만들었다.

'어깨빵'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마주 오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어깨로 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긴 신조어이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어깨빵 때문에 시비가 불기도 하고 인터넷에는 어깨빵을 대처하는 방법까지 올라올 정도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그만 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올바른 보행습관으로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독자제언

봄철 산나물 무단채취도 범죄

봄철 새순이 돋아나는 시기가 되면서 사유지에서 산두릅 등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절도신고가 빈번한 계절이 왔다.

등산이나 트래킹을 핑계 삼아 배낭을 짊어지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남의 입야에 무단으로 들어가 두릅 등을 마구잡이로 채취하여 입야 소유주나 경작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는 입야 근처에 있는 밭의 두릅까지 손을 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남의 입야에서 산나물을 캐는 것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산림법 제116조, 제117조에 근거 사유지 무단침입 및 입산물 채취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나물을 무단채취하다 소유주에게 걸려 항의를 받으면 "주인 없는 산인 줄 알았다"며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기 일쑤이다.

그리고 또한 피해신고를 할 경우 "농촌 인심이 너무 각박하다"는 등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지만 이런 변명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입야 소유주나 경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수확물을 고스란히 남에게 뺏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변용상 순창경찰서 북동파출소 경감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의 관광 시장 다변화 시도

전북도가 전북 방문의 해를 발판 삼아 이제 석달 채이다. 전북도는 그 목표한 바를 생각하며 방침을 밀고 나가야 한다.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사업 시너지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그래야 한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는 것이 있다. 관광사업의 내실을 위해 변모시켜야 할 것은 변모시켜야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엔 전북도가 동남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한한령'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전북도의 능동적인 변화는 바람직하다. 중국이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를 강요하는 이때, 때에 맞는 변화 시도가 없다면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시너지 창출은 버거운 목표가 될 터이다. 그런 이유로 전북도가 시선을 동남아 쪽으로 돌린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지난해 본보가 사설로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을 다시 반복해야겠다. 자칫했다가는 올해 전북 방문의 해를 위한 사업들이 목표체에 합참 미달될 수도 있으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한 다변화 시도는 매우 절하

는 일이라는 응원이다. 전북도는 제주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래야 한다. 문광부가 국민 여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심상하게 흘려놓아서는 안 된다. 전북 지역은 개인여행지로서나 국민여행지로서나 만족도가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다. 하지만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은 못되고 있다. 이것은 관광 사업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겉보기 평가는 우수한다. 경제적 실익은 별로이니 말이다.

전북도와 관광사업 관계자들은 분석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밑간감에 더 생각해보는 것이 있다. 전북도가 이슬람권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관광 사업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실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전북도의 브레인들이 중동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궁구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위한 사업들이 목표체에 합참 미달될 수도 있으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한 다변화 시도는 매우 절하

서민들의 걱정 대상인 식탁물가

도내 서민들이 식탁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달째 시장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제 2%대의 물가 인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이다. 특히나 내달 대선 이후가 더 큰 걱정이다. 반값 밥 소식만 들려드는 이때, 모든 관심사가 대선 정국에 쏠려 있으니 답답한 현실이다.

지금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게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저변에 호남지방통계청이 보고한 것을 다시 상기해야겠다. 1인당 총수입액이 전국 최하위였던 것 말이다. 정말이지 가난한 세대의 미래가 난감하다. 도내의 근로 빈곤층 중에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세대가 적지 않다. 저변에 도내 모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아야 한다는 기사가 다시 가슴 아파오는 요즘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그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노후 세대를 안심시켜줘야겠다.

도민 열 명 중에 네 명 꼴로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는 보도도 다시 생각나는 지금이다. 그때의 그 보도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다. 전북도가 내놓은 것이기에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그 해결을 위해서 계속 이마를 짚어야 한다. 도내에는 근로 빈곤층이 많은데 그 근로 빈곤층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근로 빈곤층의 당면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한달 한달 버거워하고 있다. 그 빈곤층 중에는 비정규 직장인이 많은 까닭이다. 전북도가 근로 빈곤층의 입장을 헤아리고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서민들이 식탁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 도는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힘을 쏟아야겠다. 거주 인구가 하향 고착화 현상을 보인지 오래 됐는데 전북도가 그 까닭을 모르는 양을 짓는다. 근로 빈곤층의 요구를 포함해 민생 경제를 잘 살린다면 좋으려니와 그게 희망 사항에 그치고 만다면 곤란하다. 그동안 전북도는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번 공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민생경제 초점 맞추기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궁금한 요즘이다. 대선을 앞두고 도내 서민들은 먹고 사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진실로 헤아려달라는 이야기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